

제 11 편

약용식물(오미자, 산수유, 독활) 수급 동향과 전망

정병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1. 개 황

1.1. 재배임가 및 면적

- 국내 약용식물의 재배 임가수를 보면, 오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산수유와 독활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오미자의 재배 임가수는 2010년 2,538호에서 2016년에는 160.4% 증가한 6,609호이었다.
 - 산수유 및 독활 재배 임가수는 2010년 각각 1,640호, 1,643호에서 2016년 1,249호, 1,325호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 약용식물의 재배면적을 보면, 오미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산수유와 독활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미자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10년에 비해 142.4% 증가한 2,688ha이었다.
 - 산수유와 독활의 재배면적은 매년 등락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재배면적은 2010년에 비해 산수유는 66ha, 독활은 26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약용작물의 재배임가 및 면적

(단위 : 호, ha)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임가수 | 오미자 | 2,538 | 3,608 | 4,041 | 4,912 | 5,941 | 6,255 | 6,609 |
| | 산수유 | 1,640 | 1,591 | 1,477 | 1,521 | 1,387 | 1,221 | 1,249 |
| | 독활 | 1,643 | 1,503 | 1,241 | 1,513 | 1,316 | 1,361 | 1,325 |
| 면적 | 오미자 | 1,109 | 1,749 | 1,978 | 2,389 | 2,587 | 2,636 | 2,688 |
| | 산수유 | 394 | 290 | 313 | 384 | 356 | 308 | 328 |
| | 독활 | 349 | 258 | 303 | 275 | 321 | 325 | 323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2017).

1.2. 생산액 추이

- 국내 임산물 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생산액은 2000년 29,624억원에서 2016년 92,032억원으로 연평균 6.9% 증가하였다.
- 약용식물 생산액은 2008년까지 천억원 미만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5,388억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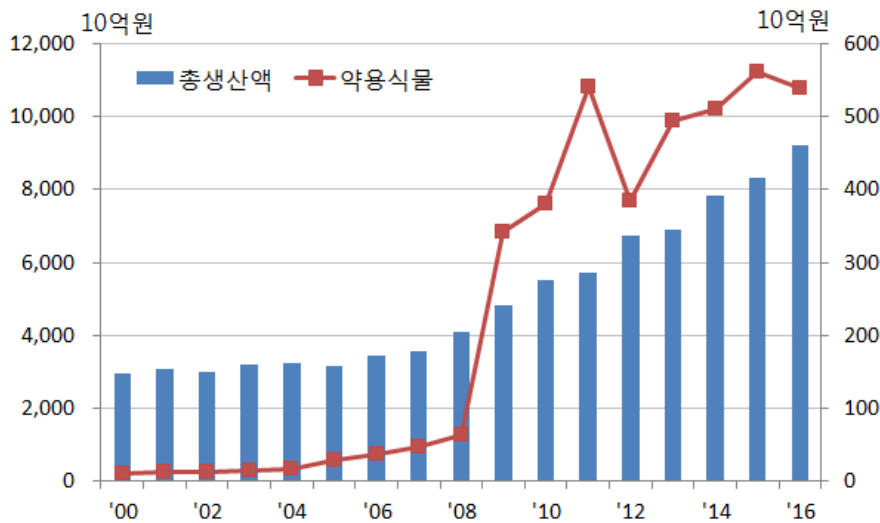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약용식물류 생산액 추이(2000~2016)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16년 약용식물 생산액은 기후 영향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한 5,388억원이었다.
- 약용식물 중에서 오미자 생산액이 가장 높았다. 오미자 생산액은 기후 영향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8.2% 감소한 1,200억원이었다.
- 산양삼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생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한 360억원이었다.

- 독활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순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소비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독활 생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생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9.5% 감소한 210억원이었다.
- 산수유 총재배면적은 연간 3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생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없는 68억이었다.
- 약용식물은 국민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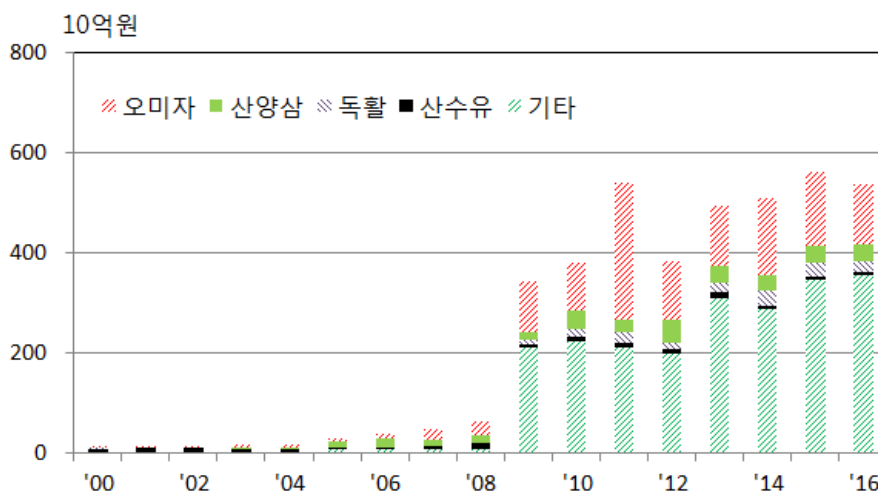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약용식물 품목별 생산액 추이(2000~2016)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 오미자

2.1. 수급 동향

2.1.1. 생산

- 오미자는 1990년 중반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신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묘목을 심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미자는 수익성이 높은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698ha로 추정된다.
- 오미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 2005년 420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315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 생산량은 가뭄, 8월의 잦은 비, 대체작목으로 전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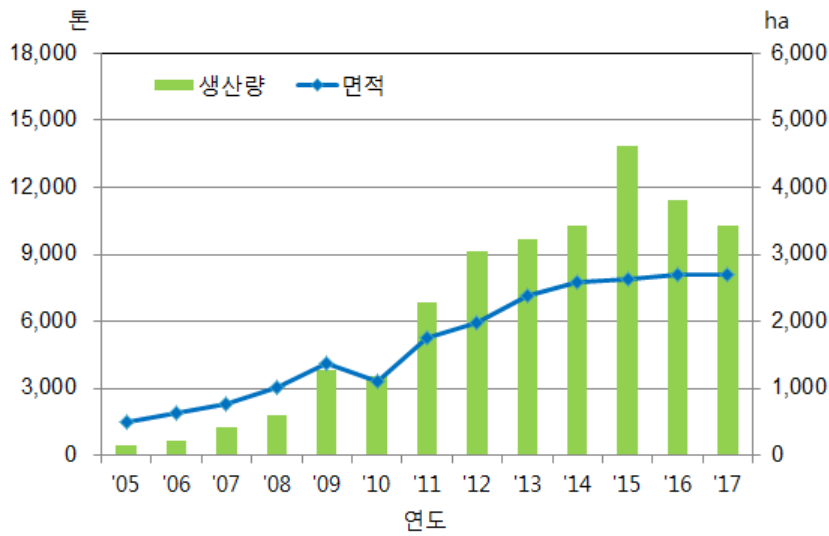


그림 3. 오미자 재배면적과 생산량(2005~2017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17년 지역별 오미자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전체의 51.2%, 전라북도가 14.7%, 경상남도가 1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산지역은 문경시, 거창군, 장수군, 상주시 등이다.
 - 경상북도의 2017년 생산량은 5,277톤으로 2005년에 비해 5,092톤이 증가하였고, 전라북도도 2017년 생산량이 1,520톤으로 2005년에 비해 1,471톤이 증가하였다.
 - 2005년과 2017년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 농가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목으로 인식하고 재배를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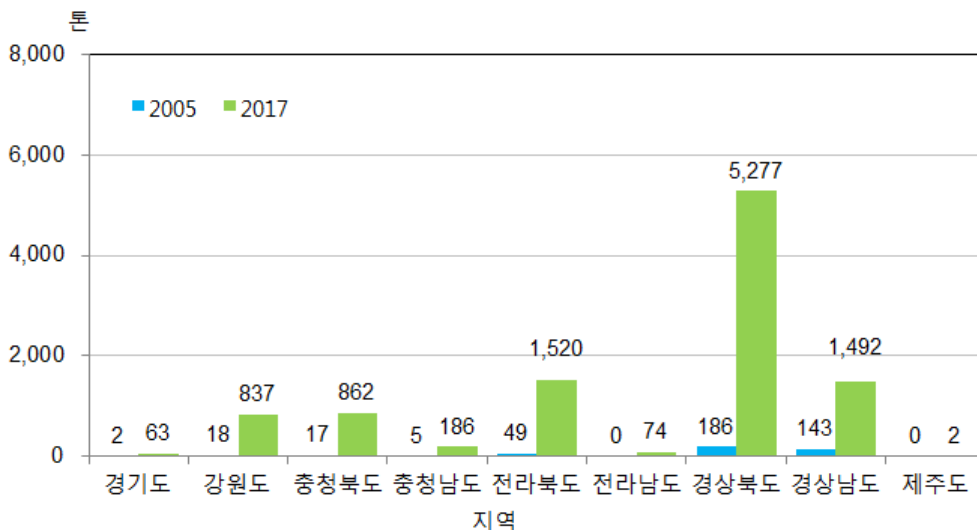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오미자 생산량 비교(2005년과 2017년)

출처 :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

2.1.2. 수출입

- 오미자 수출 동향을 보면, 2012년 2,311kg에서 2013년 35kg으로 급감하였다가 2017년에는 43,458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액으로는 2012년에 6,114달러에서 2017년 324,746달러로 약 53.1배 증가하였다. kg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012년에는 2.65달러였으나, 2017년에는 7.47달러로 증가하였다.
- 수입은 2013년 629,878kg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56,121kg이었다. 수입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 단가는 2012년 2.47달러에서 2017년에는 6.31달러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오미자 수출입 추이

(단위 : kg, 달러)

| 구분 | 수출 | | 수입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2012 | 2,311 | 6,114 | 507,873 | 1,253,965 |
| 2013 | 35 | 381 | 629,878 | 1,861,453 |
| 2014 | 342 | 5,785 | 302,679 | 1,154,426 |
| 2015 | 839 | 20,099 | 143,605 | 595,394 |
| 2016 | 330 | 11,096 | 15,125 | 98,904 |
| 2017 | 43,458 | 324,746 | 56,121 | 354,269 |

자료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

- 오미자는 과거 캐나다,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등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량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7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량은 42,960kg이었다.

표 3. 오미자 주요 수출국

(단위 : kg, 달러)

| 구분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미국 | 157 | 3,809 | 839 | 20,099 | 311 | 10,760 | 483 | 12,826 |
| 영국 | 0 | 0 | 0 | 0 | 9 | 300 | 0 | |
| 인니 | 0 | 0 | 0 | 0 | 10 | 36 | 0 | |
| 캐나다 | 20 | 228 | 0 | 0 | 0 | 0 | 15 | 871 |
| 홍콩 | 165 | 1,748 | 0 | 0 | 0 | 0 | | |
| 중국 | 0 | 0 | 0 | 0 | 0 | 0 | 42,960 | 311,049 |
| 합계 | 342 | 5,785 | 839 | 20,099 | 330 | 11,096 | 43,458 | 324,746 |

자료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

2.1.3. 소비

- 오미자 소비량은 2006년까지 천톤 미만이었으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328톤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0.0% 감소하였다.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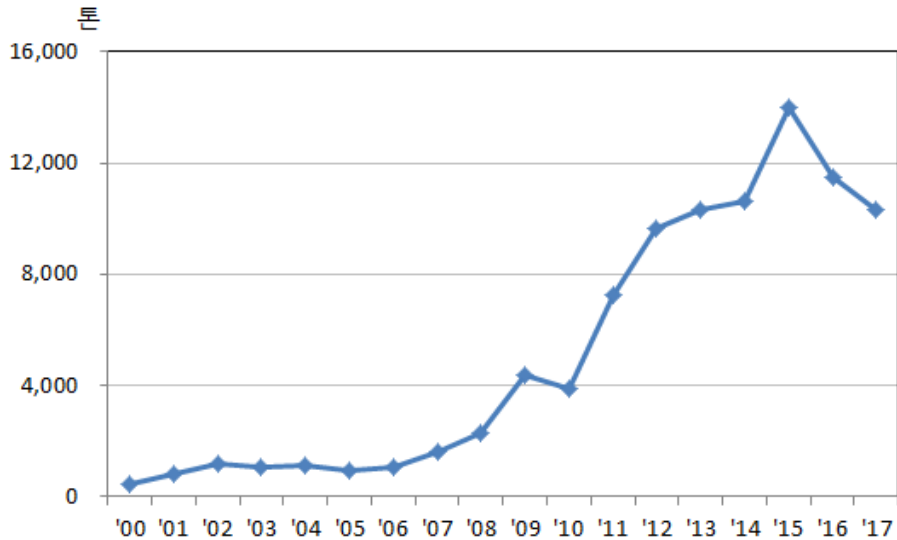


그림 5. 오미자 소비동향(2000~2017년)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임산물수출입통계.

- 농촌진흥청 패널조사에 의하면, 오미자 가구당 구입액은 2010년 2,757원에서 2014년 3,194원으로 15.9% 증가하였다.
- 월소득 수준별 구입액을 보면, 500만원 이상에서 연평균 구입액이 4,11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오미자 연간 구입액 추이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4. 가구속성별 오미자 구입액

(단위 : 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 |
|--------|--------------|-------|-------|-------|-------|-------|-------|
| 구입액 | 2,757 | 3,545 | 2,912 | 3,263 | 3,194 | 3,134 | |
| 월소득 수준 | 350만원 미만 | 2,495 | 4,110 | 2,256 | 2,456 | 1,766 | 2,617 |
| | 350~500만원 미만 | 2,620 | 2,936 | 2,604 | 2,075 | 1,697 | 2,386 |
| | 500만원 이상 | 3,066 | 3,564 | 3,662 | 4,801 | 5,457 | 4,110 |

자료 : 박성호, 김미옥, 조용빈. 2017. 오미자 소비 특성 분석과 산지 생산 효율화 방안.

2.1.4. 가격

- 오미자 실질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약간 상승하여 2017년 실질가격은 16,642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실질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가뭄, 8월 잦은 비 등으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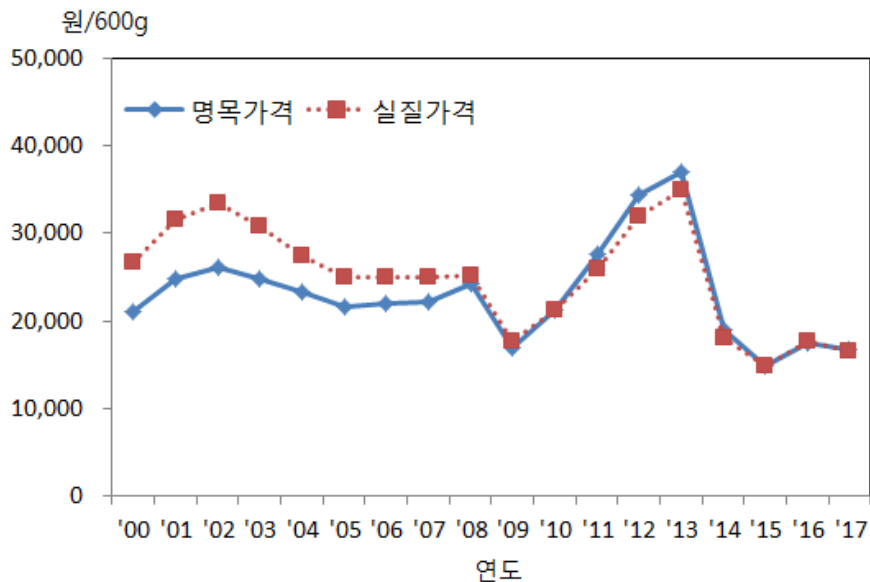


그림 6. 오미자 가격 추이(2000~2017년)

주 :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2.2. 수급 전망

- 2018년 오미자 재배면적은 토지임차 비용 등 경영비용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709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2,749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생산량은 가뭄 등 기후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전년보다 증가한 11,550톤이 될 전망이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 11,720톤이 될 전망이다.
- 2018년 오미자 수입량은 5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해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32톤이 될 전망이다.
- 2018년 수출량은 주로 해외 교민들이 거주하는 미국 등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특별한 외적 요인 없어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미자 소비량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해 2018년에 11,557톤에서 2022년에 11,708톤이 될 전망이다.



표 5. 오미자 수급 전망

(단위 : ha, 톤)

| 구 분 | 실측치 | | | 추정치 | 전망치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 2022 |
| 재배면적 | 2,587 | 2,636 | 2,688 | 2,698 | 2,709 | 2,729 | 2,749 |
| 생산량 | 10,313 | 13,826 | 11,462 | 10,315 | 11,550 | 11,638 | 11,720 |
| 수입량 | 303 | 144 | 15 | 56 | 51 | 41 | 32 |
| 수출량 | 1 | 1 | 1 | 44 | 44 | 44 | 44 |
| 소비량 | 10,615 | 13,969 | 11,476 | 10,328 | 11,557 | 11,635 | 11,708 |

3. 산수유

3.1. 수급 동향

3.1.1. 생산

- 산수유 재배면적은 2009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11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약간 증가하여 현재는 3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개량품종을 식재하는 등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수유 생산은 지역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나, 재배자들의 고령화, 농촌 노동력 감소, 가뭄 등으로 생산량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생산량은 가뭄 등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한 247톤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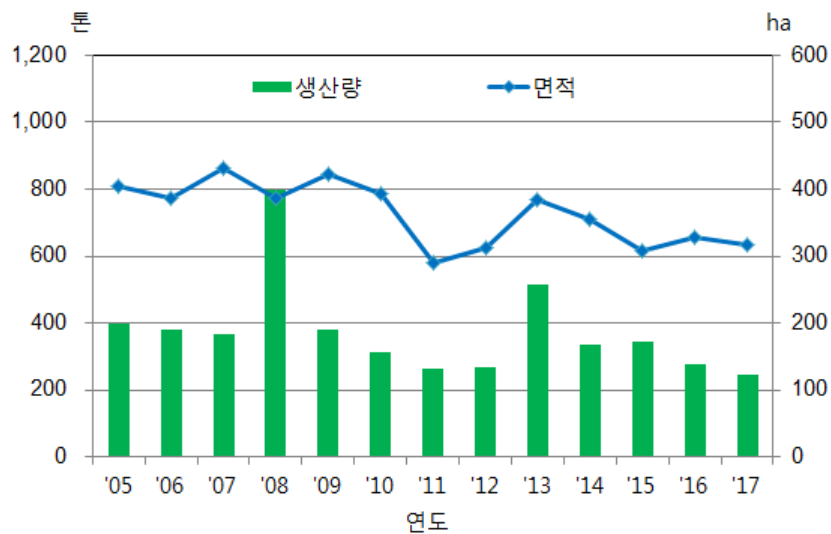


그림 7. 산수유 재배면적과 생산량(2005~2017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17년 지역별 산수유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전체의 60.4%를 점유하고 경상북도가 13.2%, 전라북도가 10.5%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산지역은 구례군, 군위군, 의성군 등이다.
 - 전라남도는 2017년 생산량이 2005년에 비해 48.6% 감소한 150톤, 경상북도는 2017년 생산량이 33톤으로 2005년에 비해 46.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05년과 2017년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를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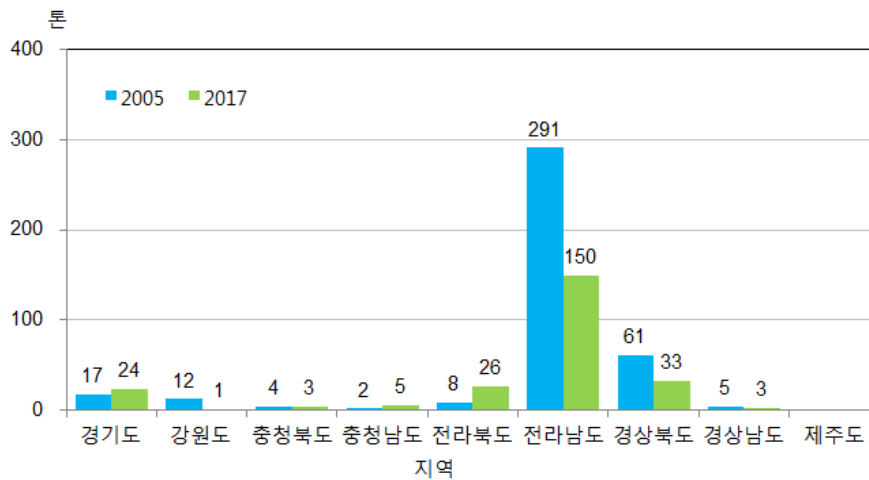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산수유 생산량 비교(2005 vs. 2017)

출처 :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

3.1.2. 수입

- 2017년 산수유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18.5% 감소한 141,857kg으로 추정된다. 산수유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kg당 수입단가는 2012년 3.0달러에서 2017년 3.3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된 산수유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비율보다는 차 등 다른 용도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산수유 수입 추이

| 구 분 | 수 입 | |
|------|---------|---------|
| | 중량(kg) | 금액(\$) |
| 2012 | 268,223 | 794,651 |
| 2013 | 130,758 | 386,856 |
| 2014 | 66,218 | 258,018 |
| 2015 | 286,355 | 906,061 |
| 2016 | 174,063 | 604,097 |
| 2017 | 141,857 | 470,588 |

주 : 2017년은 추정치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3.1.3. 소비

- 산수유 소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연간 400톤 내외를 소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이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수유는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 왔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3.4% 감소한 389톤으로 추정된다. 산수유는 주로 차, 즙, 담금 술 등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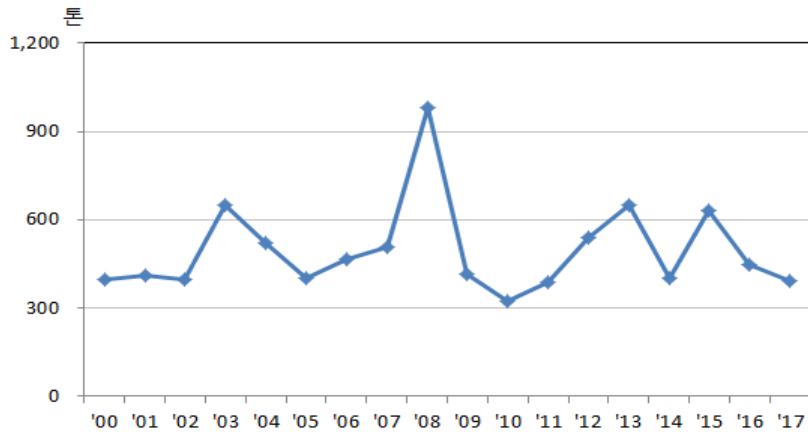


그림 9. 산수유 소비동향(2000~2017년)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3.1.4. 가격

- 산수유 실질가격은 2001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1년 단위 당 24,990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산수유 실질가격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14,117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가뭄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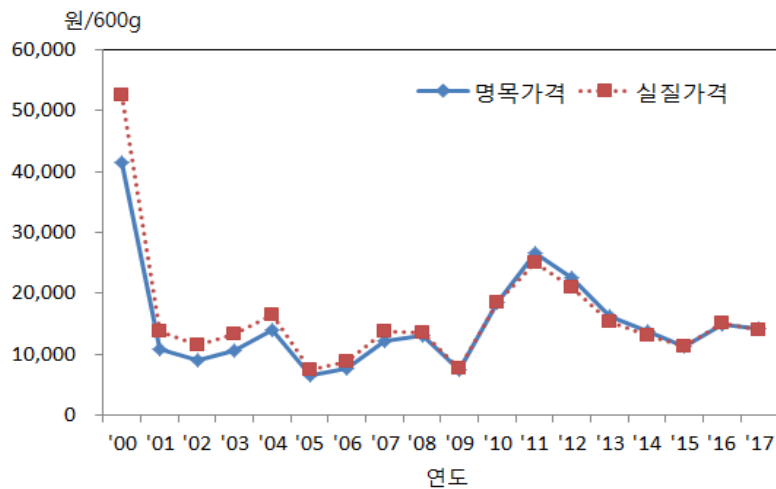


그림 10. 산수유 가격 추이(2000~2017년)

주 :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3.2. 수급 전망

- 2018년 산수유 생산량은 전년도의 작황 부진에서 벗어나 2016년 수준인 275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수유 생산량은 2022년까지 큰 변화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145톤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의 일정 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물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수유 소비량은 국내 소득 증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소비량은 현재 보다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표 7. 산수유 수급 전망

(단위 : 톤)

| 구 분 | 실측치 | | | 추정치 | 전망치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 2022 |
| 생산량 | 336 | 344 | 275 | 247 | 275 | 276 | 276 |
| 수입량 | 66 | 286 | 174 | 142 | 145 | 150 | 154 |
| 소비량 | 402 | 630 | 449 | 389 | 420 | 426 | 430 |

4. 독활

4.1. 수급 동향

4.1.1. 생산

- 독활 재배면적은 2009년 531ha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258ha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325ha, 2016년 323ha, 2017년 324ha로 추정되어 최근에는 거의 일정한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약용재를 생산하기 보다는 매년 새로운 순을 수확하여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독활은 2008년까지 500톤 이하로 생산되다가 2009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4년 1,767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봄철 가뭄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5.0% 감소한 1,417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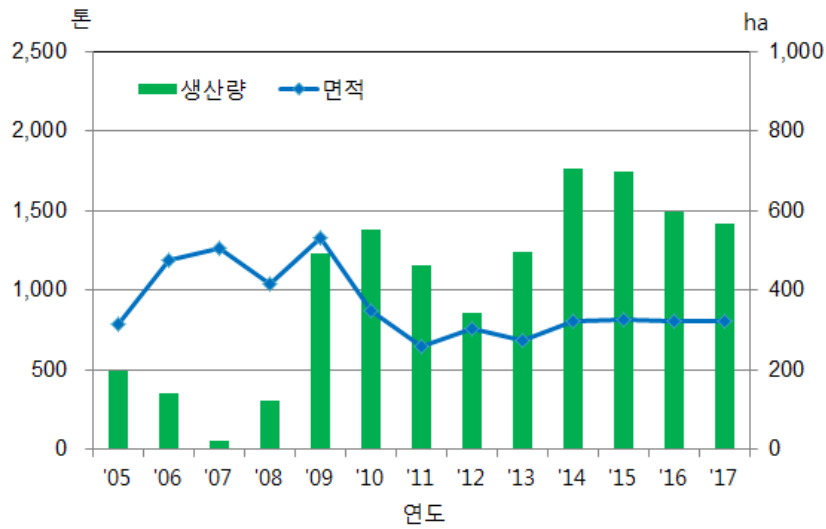


그림 11. 독활 재배면적과 생산량(2005~2017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2017년 지역별 독활 생산량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전체의 52.3%를 점유하고 경상남도가 16.9%, 전라북도가 10.9%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산지역이 과거에는 전라북도였으나,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로 바뀌었다.

- 충청남도는 2017년 생산량이 741톤으로 2005년에 비해 734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상남도는 2017년 생산량이 240톤으로 2005년에 비해 236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라북도의 독활 생산량은 2005년 458톤에서 2017년에는 155톤으로 66.2% 감소하였다. 이렇게 전라북도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자의 고령화와 판로 문제 등으로 재배를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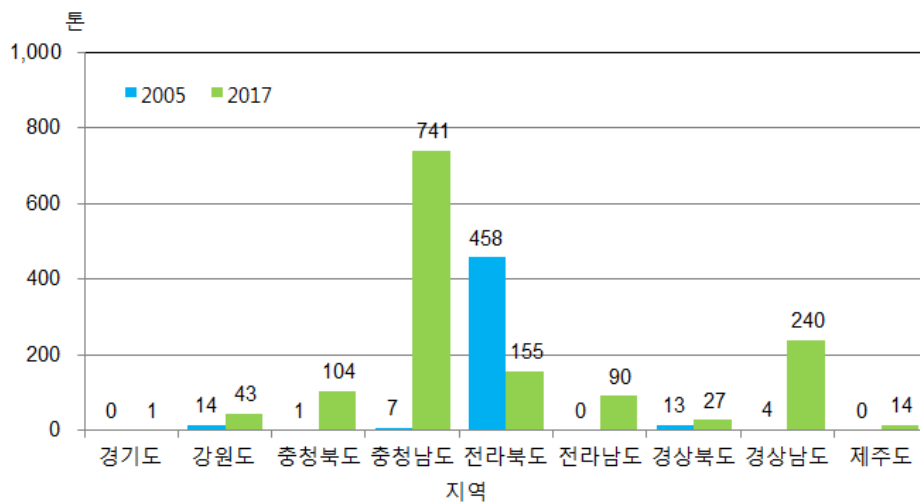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별 독활 생산량 비교(2005 vs. 2017)

출처 :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

4.1.2. 수입

- 독활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활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kg당 수입가격도 2012년 1.6달러에서 2017년 1.1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된 독활은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독활 수입 추이

| 구 분 | 수 입 | |
|------|---------|---------|
| | 중량(kg) | 금액(\$) |
| 2012 | 199,071 | 309,430 |
| 2013 | 115,879 | 200,431 |
| 2014 | 63,396 | 74,661 |
| 2015 | 13,566 | 13,566 |
| 2016 | 43,771 | 51,342 |
| 2017 | 41,008 | 45,026 |

주 : 2017년은 추정치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4.1.3. 수요

- 독활 소비는 2008년까지 400톤 내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100~1,300톤으로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1,500톤 내외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독활은 주로 식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고 약용으로 소비되는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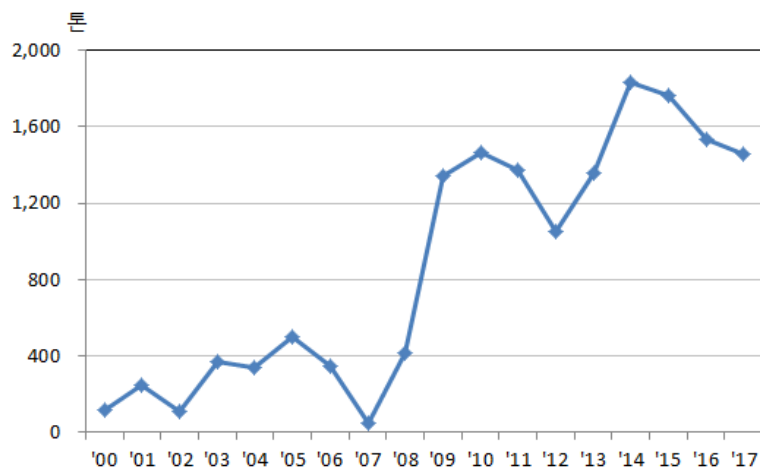


그림 13. 독활 소비동향(1997~2017년)

출처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4.1.4. 가격

- 독활의 실질가격은 2008년까지 6,000원을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하여 최근에는 9,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독활의 실질가격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9,811원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실질가격이 증가한 이유는 독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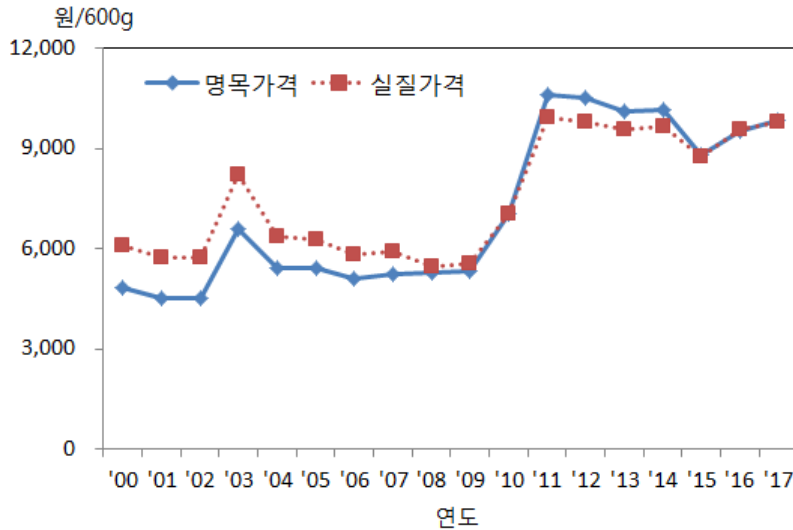


그림 14. 독활 가격 추이(2000~2017년)

주 :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4.2. 수급 전망

- 2018년 독활 생산량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한 전년도 보다 조금 증가한 1,497톤으로 전망된다. 독활은 농산촌의 고령화 등으로 타 작목에 비해 재배가 어렵지 않은 관계로 생산량은 조금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07톤이 될 전망이다.
- 2018년 독활 수입량은 39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수입 되는 독활은 약용으로 사용되며, 단기적으로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독활 소비량은 2018년 1,536톤에서 2022년에는 1,537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활은 약용 보다는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국내 소비량은 국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독활 수급 전망

(단위 : 톤)

| 구 분 | 실측치 | | | 추정치 | 전망치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 2022 |
| 생산량 | 1,767 | 1,751 | 1,491 | 1,417 | 1,497 | 1,503 | 1,507 |
| 수입량 | 63 | 14 | 44 | 41 | 39 | 34 | 30 |
| 소비량 | 1,860 | 1,765 | 1,535 | 1,458 | 1,536 | 1,537 | 1,537 |